

2주 2019년 동계방학 묵상지

12월 23일 월요일	<말씀묵상>	옵 25-27
<p>• 내용요약: 25장은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세 번째 하는 공박으로 하나님의 주관과 위엄에 근거하여 인생은 별레 같다고 함으로 회개치 않는 욥을 비난한다. 26장은 빌닷의 공박에 대하여 욥은 반어적 질문으로 비웃으며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시며 하나님 앞에 숨길수 없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임을 고백한다. 27장은 세 친구에 대하여 욥은 변론하면서 자신은 죽기 전까지 결코 공의와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하며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한다.</p> <p>▶ 질문: “결코 내 입술이 ()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을 말하지 아니하리라”(27장)</p> <p>▶ 생각하기: 고난에 처하였을 때 고난 속에서 고난을 볼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하여 반드시 잃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p>		
12월 26일 목요일	<말씀묵상>	옵 34-36
<p>• 내용요약: 34장은 33장에 이어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과 세 친구들에게 말한다. 욥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부인하신다고 한 말에 대하여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권면하면서 욥이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다고 한다. 35장은 엘리후는 계속하여 교만한 악인의 부르짖음에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나 욥의 고난과 어리석은 말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 36장은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아시므로 악으로 치우치지 말 것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한다.</p> <p>▶ 질문: 엘리후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여 살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였는가?(36장)</p> <p>▶ 생각하기: 끈고한 자를 끈고함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심을 알고 있는가?</p>		
12월 29일 일요일	<말씀묵상>	시 28-30
<p>• 내용요약: 28편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이시며 방패이시며 구원의 요새이시며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손을 들어 지성소를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영원히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한다. 29편은 다윗은 권능을 가진 자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p>		

12월 24일 화요일	<말씀묵상>	옵 28-30
<p>• 내용요약: 28장은 27장에 이어 세 사람들의 공박에 대한 욥의 변론으로 욥은 사람이 지닌 지혜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읊조리면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하며 이 지혜와 명철의 주관자되심을 말하며 진정한 지혜와 명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29장은 세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변론하는 욥은 지난 세월 자신이 베풀었던 자비와 행하였던 의로움과 애곡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등 불쌍한 이들을 돌보았던 삶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 힘입어 살았음을 고백한다. 30장은 욥은 현재 당하는 고난의 삶 속에 자신은 타인의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조롱거리가 되었음을 토로하면서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자신이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고백한다.</p> <p>▶ 질문: “보라 주를 경외함이 ()요 악을 떠남이 ()이니라”(28장)</p> <p>▶ 생각하기: 이 땅에서 지혜롭고 명철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가?</p>		
12월 27일 금요일	<말씀묵상>	옵 37-39
<p>• 내용요약: 37장은 엘리후의 계속되는 권면이다. 그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한다. 38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무지한 인간의 생각을 바로 잡으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뛰어나신 지혜자이시며 지혜 자체이심을 인간의 나약함과 비교하신다. 39장은 동물들의 출산과 방법 및 시기, 동물들의 거처와 먹이사슬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며 동물들을 사육하며 부리는 인간들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간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은 생각들을 교정하신다.</p> <p>▶ 질문: 인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39장)</p> <p>▶ 생각하기: 이 세상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간임을 인정하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p>		
<p>돌릴 것을 강력하게 권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진정한 권능자이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왕으로 좌정하시며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하며 기도한다. 30편은 성전을 낙성 할 때 부르는 노래, 기도이다. 다윗은 자신이 주님을 높이는 것은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주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p>		

이름: _____ 학번: _____		
12월 25일 수요일	<말씀묵상>	옵 31-33
<p>• 내용요약: 31장은 욥은 자신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없음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살펴 줄 것을 호소하며 자신의 지난날의 삶이 정직하였고 온전하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아 주지 않고 있음을 원망조로 말한다. 32장은 욥과 세 친구 사이에 부스 사람 바라quel의 아들 엘리후가 등장하여 인과응보 사상에 근거하여 욥을 공박하였던 세 친구와 지난 날 자신이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주장하는 욥의 잘못됨을 지적하면서 참된 지혜를 가르치겠다고 한다. 33장은 엘리후가 욥에게 권면의 말을 시작한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잘못된 삶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을 제안한다.</p> <p>▶ 질문: 욥과 그의 세 친구와의 끝없는 공박과 변론 가운데 새롭게 등장하여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이는 누구인가?(32장)</p> <p>▶ 생각하기: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떠한가?</p>		
12월 28일 토요일	<말씀묵상>	시 25-27
<p>• 내용요약: 25편은 다윗이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를 보여 주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끈고와 환난을 돌보아 주시고 이에서 구원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을 간절히 기도한다. 26편은 하나님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자신의 모든 것은 판단하여 주시고 단련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집과 주의 영광 중에 거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한다. 27편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과 생명이심을 고백한다. 또한 다윗은 아무도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고하며 기도한다.</p> <p>▶ 질문: “내가 내 평생에 ()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27편)</p> <p>▶ 생각하기: 하나님만을 바라는 다윗의 평생의 소원과 오늘 나의 소원 간에 차이가 있는가? 동일한가?</p>		
<p>주셨음에 자신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였다고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노래한다.</p> <p>▶ 질문: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하며 그의 거룩함을 ()하며 감사하라”(30편)</p> <p>▶ 생각하기: 인생 살아가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p>		